

재생에너지

인프라정책에 속도를 붙이는 바이든

유틸리티/철강

Analyst 문경원

02. 6454-4881

kyeongwon.moon@meritz.co.kr

바이든, 1.75조 달러 규모의 신규 인프라 정책안 제시

바이든의 2차 인프라 패키지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.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 합의를 얻기 위한 총 1.75조 달러 규모의 신규 정책안을 제시하며, '민주당이 중간 선거 이후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 지는 다음 몇 주에 따라 갈릴 것이다'라고 호소했다. 처음 제시했던 3.5조 달러 대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모습이지만 해당 법안에 담긴 세계 혜택만으로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, 수소 산업은 대폭 수혜를 볼 수 있다. 관련 기대감에 Plug Power(+7.85%), Bloom Energy(+5.94%), Enphase(+3.81%), Eaton(+3.02%) 등 친환경, 전력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했다.

1.75조 달러 중 0.555조 달러는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이고, 이 중 0.320조 달러는 세계 혜택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. 이전 보고서를 통해 소개했던 세계 혜택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('2021/9/27 세프 바이든의 메인 디쉬' <https://bit.ly/3o7HSqL>).

다음주 열리는 UN COP26 회의, 기후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

10월 31일 일요일부터는 UN 산하 하에 COP26 회의가 열린다. 이를 통해

- 1) 각국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목표(NDC)가 상향 조정되어 발표된다.
- 2)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를 위한 기금 지원안이 논의된다.
- 3) 무엇보다도 각국의 탄소 배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이다(Article 6). UN 산하 하에 탄소국경세,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통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. 기후 변화에 실질적 강제성이 부여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.

정책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, 그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Compliance Notice

본 조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